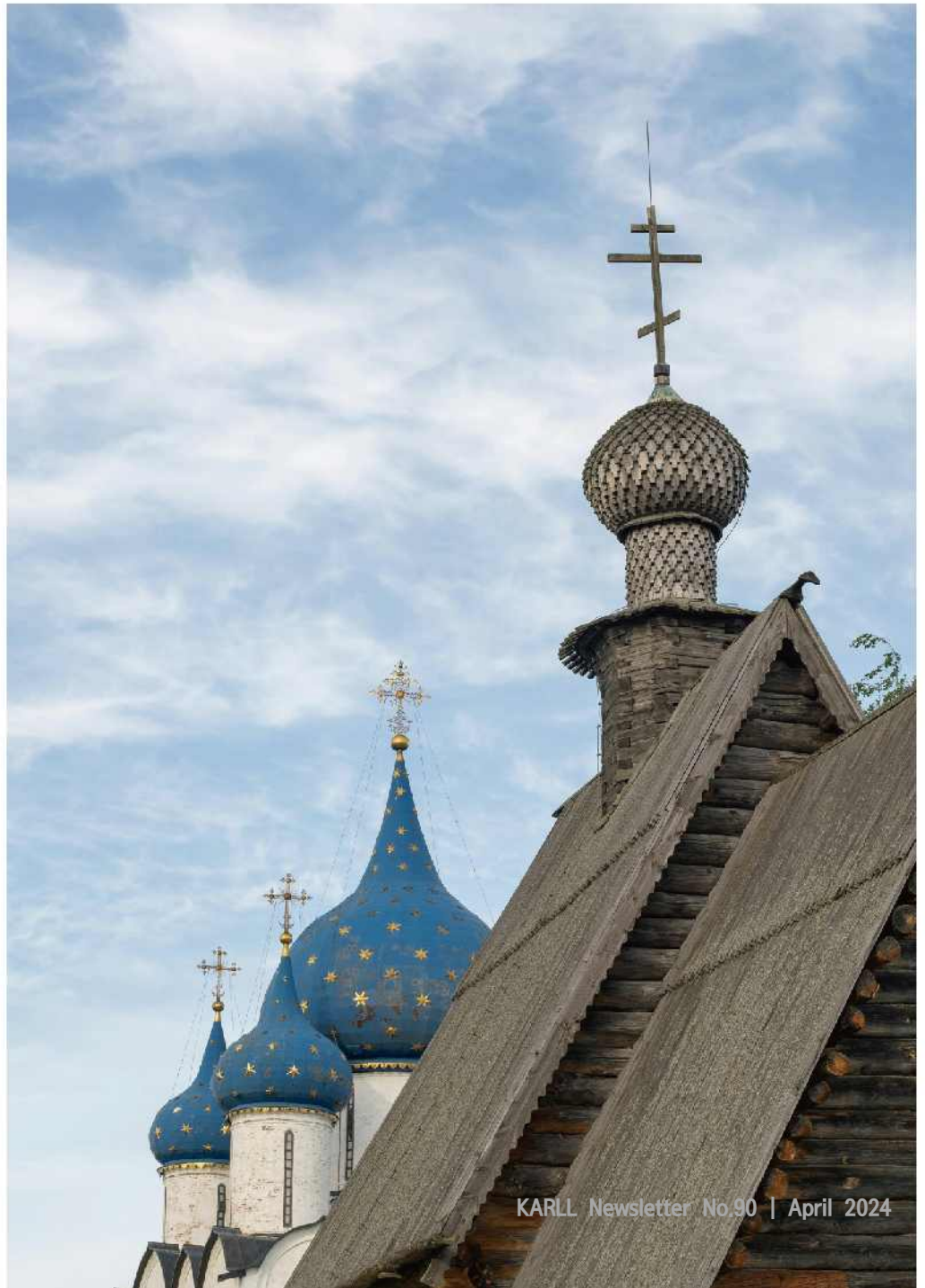


#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2024년 4월 제90호

**KARLL**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24년 4월 제90호

###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24년 4월 제90호

발행처: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김성일

편집인: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국

주 소: [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교수연구동 310호

전 화: 02-820-5879

Homepage: <https://karll.or.kr>

E-mail: [karll21@naver.com](mailto:karll21@naver.com)

총무국 계좌(연회비/평생회비 납부전용): 우리은행 1002-164-894347 (예금주: 송정수)

편집부 계좌(심사비/논문게재비 납부전용): 농협 302-1890-4532-51 (예금주: 강수경)

# 목 차

# CONTENTS

I	권두언	.....	3
II	학회소식	.....	5
III	회원논단	.....	8
IV	한국을 향한 창	.....	11
V	러시아를 향한 창	.....	13
VI	신간 안내	.....	15
VII	공지 사항	.....	17
VIII	학회지 『노어노문학』 투고 안내	.....	18
IX	회비납부 현황	.....	20
X	시와 함께 머무는 시간	.....	21

## 권두언

# 오래된 미래



김성일(청주대)

올해도 어김없이 새 학년과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강과 함께 마주한 활기찬 분위기와 더불어 주차할 곳을 찾아 실내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아야 하는 수고는 기본이고 층마다 엘리베이터의 몸값이 만 원씩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도 목격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 오르락 내리락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보며 마치 주식 차트인 양, 달콤한 디저트 ‘설빙’(雪氷)이 아닌 마음 졸이는 ‘설강’(設講)을 기원하는 의식도 무사히 끝내고 벌써 수업은 6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티칭’이 아닌 ‘코칭’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을 벌써 여러 번 들어왔지만, 아득한 학생 시절부터 티칭에 익숙해진 몸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강의 대부분을 직접 만든 상당 분량의 교안(물론 학생들에게 제공)을 갖고 주로 혼자 떠드는 퍼포먼스를 이번 학기도 역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매 학기 종강때마다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어 보지만, 긴긴 방학이라는 레테 강을 건너고 나면, 양손 가득 담았던 물이 손가락 사이로 모두 새어 버리듯, 다짐은 어느새 하얗게 지워져 있습니다.

큰 변화 없이 반복되는 긴 호흡의 일상 장면입니다. 삶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 무늬가 새겨집니다. 이번에는 권두언이 그 자극이었습니다. 소식지 첫 호는 회장이 써야 된다고 하는 강압된(?) 요청에 어쩔 수 없는 반강제적 동의를 하고 난 후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와 내용을 떠올려 보았지만 신통치 않았습니. 신학기 강의 준비를 비롯한 다망함을 핑계로 권두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감이 가까워졌을 때 진력을 다해 쓸 수 있다는 헛된 경험과 효율성 타령으로 커져만 가는 무의식의 압박을 위무해 보았지만, 달력 속 약속한 날짜는 다른 날짜들을 모두 무화(無化)시키며 자신의 존재를 밝혀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가 아닌 기억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민 끝에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만 남아 있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책 『오래된 미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오래된’이란 말에 홀리듯 학회 과거로의 기억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학회 홈페이지 재구축 작업으로 인해 역대 회장님들의 계보가 필요하여 이전 학술지와 학술대회 프로시딩을 찾아보았던 것도 여행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1987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37돌이 되는 우리 학회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학회 현판’입니다. 원래는 학회사무실 앞에 걸려 있어야 하는데, 20년 가까이 제 연구실의 한구석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판은 2006년 제가 학회 총무이사를 맡으며 고려대 고일 교수님으로부터 전해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학회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강홍주 전 회장님께서 학회 소식지 창간호를 보여주시며 오래된 학회의 기억을 되살려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된 학회 기억을 실물 대신 사진으로나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권두언 제목인 ‘오래된 미래’는 형용모순입니다. ‘오래된’은 시간이 지나간 동안의 길이를 나타내는 과거의 의미기에 아직 도래하지도 않는 미래와 결합될 수 없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책 제목과 내용에 기대어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헬레나 호지 책의 라다크 사람들의 현재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해석의 단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푹 푹히 밝혀진 것은 미래도 과거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함이 옳지 못할 것이요,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 하는 것이 그럴듯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혼 안에 있음을 어느 모로 알 수 있으나 다른 데선 볼 수 없사오니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목격함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세 가지 때를 내가 볼 수 있고, 사실 셋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점점(點點)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 과거의 파지(把持)상과 미래의 예지(豫智)상이 포함된 두툼한 “생생한 현재”(E. 후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예를 우리는 로만 야콥슨이 마야콥스키 조서에서 썼던 “우리는 너무 미래로 살았다.”(Мы слишком жили будущим)라는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야콥스키의 자살이 ‘생생한’ 현재가 아닌 ‘생생화된’ 미래만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헬레나 호지는 개발에 따른 라다크 사람들의 부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며 개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재 지켜야만 하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즉, ‘오래된 미래’, ‘과거와 미래가 포함된 현재를 사는 것’이란 바로 간직해야만 되는 가치를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되는 라다크의 모습은 변화를 강요(?)받는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있습니다. 인문학의 위축이 그중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소비되던 문학이 이미지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오래된 ‘과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 이미 유리 올레샤는 단편(斷篇) 산문집 『매일 한 줄씩』에서 ‘메타포 가게’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 상황을 예견한 듯합니다. 역시 길지만 인용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나는 메타포 가게를 열

었다. (...) 나는 많은 훌륭한 메타포들을 갖고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그것들 가운데 하나로 인해 가게에 불이 날 뻔했었다. 그것은 어느 가을날 오후 나무 밑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웅덩이에 관한 메타포였다. 이 웅덩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무 밑동에 마치 집시여인처럼 누워있었다. (...) 그래서 나는 나의 메타포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값비싼 메타포들을 사지 않았고, 주로 ‘죽음과 같이 창백한’ 혹은 ‘시간은 피곤하게 지나갔다’와 같은 메타포들을 샀으며, ‘백양나무처럼 맵시 있는’이라는 메타포들은 순식간에 팔렸다. 그러나 이것은 값싼 상품이었다. 따라서 나는 심지어 그럭저럭 살 수도 없게 되었다. 내 스스로 이미 ‘그럭저럭 살다’와 같은 그러한 표현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했다.” AI, ChatGPT, 인지과학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올레샤 문학이 겪었던 ‘필요 없는 주제’라는 위기감을 다시 되뇌게 될지, 아니 도스토옙스키가 ‘수수께끼’라고 정의했던 인간이 앞으로는 기계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서없었던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권두언을 통해 학회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과거와 오래된 미래를 생생한 현재 속에서 함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인문학의 가치를 간직하고 구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를 강요받는 것만이 아닌 변화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러시아학을 새롭게 해석, 정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AI와 도스토옙스키’, ‘미하일 불가코프 작품에 나타난 가상현실’, ‘가상현실 속 의사소통의 제(諸)문제’, ‘기계번역 시대의 러시아시 번역’ 등과 같은 우리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연구들도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 노어노문학회가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젊은 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역시 형용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년 전에 이미 푸시킨은 이 모순 극복의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꿈이 있기에 그대는 젊다!” 감사합니다.

## 학회 소식

### ● 한국노어노문학회 제19대 학회장 선출 및 임원진 출범

지난 2023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연례학술대회에서 청주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김성일 교수님을 한국노어노문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학회장님을 필두로 한국노어노문학회 제19대 임원진이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학회를 위해 봉사하고 애써주실 제19대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성명	소속
회장	김성일	청주대
부회장(어학)	김영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회장(문학)	박미령	건국대
총무이사	송정수	중앙대
총무부이사	강수경	부산대
연구이사(어학)	길윤미	경북대
연구이사(문학)	장혜진	송실대
연구이사(문화)	조준래	한국외대
연구이사(역사)	김용환	경상국립대
연구이사(통번역학)	강동희	한국외대
대외협력이사(국내)	김성완	계명대
	김신효	제주한라대
	김준석	경기대
대외협력이사(국외)	정미숙	가톨릭관동대
	손현익	한국외대
	유학수	선문대
	이은경	한국외대
	조규연	단국대
대외홍보이사	최진석	서울과기대
	김희연	안양대
	박미정	경북대
	최아영	서울대

## 학회 소식

### ● 한국노어노문학회 제19대 편집위원회 출범

한국노어노문학회 제19대 임원진 구성과 더불어 새로운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9대 편집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 동안 우리 학회의 등재학술지 『노어노문학』 발간을 위해 애써주실 제19대 편집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차지원	충북대
편집이사(문학)	박선영	서울대
편집이사(어학)	한지형	부산가톨릭대
편집이사(문화)	라승도	한국외대
편집이사(역사)	황성우	한국외대
편집이사(통번역학)	서유경	한국외대
편집부이사	윤서현	서울대
편집위원(문학)	전미라	한국외대
편집위원(어학)	김태진	배재대
편집위원(문화)	김민아	경북대
편집위원(역사)	신보람	전북대
편집위원(통번역학)	유정화	육군사관학교
연구윤리위원	김형섭	중앙대

# 학회 소식

## ● 학회 홈페이지 신규개편 및 회원정보 갱신 안내

한국노어노문학회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https://karll.or.kr>)  
 기존의 홈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제작되어 더 이상 구동되지 않는 관계로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신규 홈페이지를 제작,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홈페이지에서 학술대회안내 및 참가 신청, 회원가입, 논문 투고 안내, 연회비납부현황, 씨앗기부금납부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분들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갱신해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단장한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 학회 신규 로고 제작

한국노어노문학회의 로고가 새롭게 개편, 제작되었습니다.  
 로고의 의미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 홈페이지 내 <학회소개>-<학회로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볼-컬러



한국노어노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Logo-한·영 컬러-중앙정렬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Logo-한·러 컬러-중앙정렬



심볼-흑백



한국노어노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Logo-한·영 컬러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Logo-한·러 컬러



## 회원논단

# '두 세계 사이에 갇힌 사람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들



최아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년 2월 유라시아 지역 난민들의 궤적을 따라 그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다. 마지막 여정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르샤바에 거주하게 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났다. 바르샤바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는 8번째 스탈린 양식의 건물, 소비에트 인민과 폴란드 인민들의 '우정의 상징'으로 소련이 선물했다는 문화과학 궁전을 창 너머로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했었다. 바르샤바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이 거대한 42층짜리 건물은 전쟁 이후 반러시아적 정서가 더욱 강해진 폴란드인들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읽히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2024년 1월 기준 폴란드에는 약 9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르면 '난민'은 아니다. 전쟁으로 인해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 이주민들을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3월에 EU가 발표시킨 '임시보호지침'(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에 따라 이들은 '임시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나마 임시보호지침도 내년 3월 4일에는 기한이 종료된다. 현재 바르샤바에 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상당수는 집단 숙소에서 나와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 장애인 등은 여전히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바르샤바 글로벌엑스포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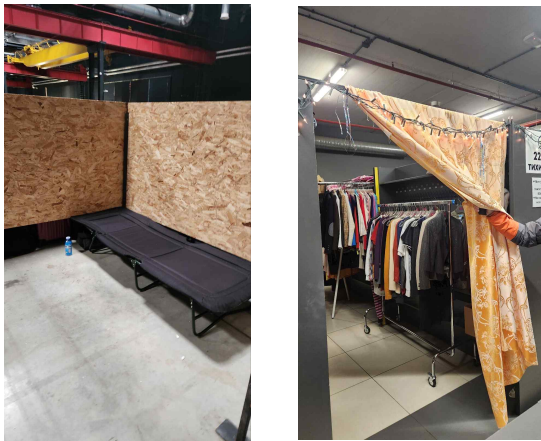
<바르샤바 글로벌엑스포 난민 캠프 입구>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 내부 조형물>

바르샤바에 있는 난민 캠프인 글로벌 엑스포는 한 폴란드 기업인이 회사 건물을 전쟁 이후 폴란드로 밀려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개방한 것이었다. 이곳은 원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지원이 감소하여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 24시간 제공하던 의료서비스도 이제 2시간만 가능하고, 하루 3번 제공하던 무료 급식도 2번으로 축소했다. 난민 아동을 위한 유치원도 역시 재정지원 문제로 지금은 폐쇄되었다. 거주 공간 내부로 들어가면 칸막이가 죽 늘어선 체육관과 흡사한 넓은 공간이 나온다.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는 간이침대가 하나 있고 출입구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막아놓았다.



<난민 캠프 내에 마련된 숙박 장소와 의류공급센터>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다수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이었다. 세탁, 설거지, 청소 노동을 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국에 있는 남편에게 송금까지 해야 하는 삶의 짐을 오롯이 혼자 지고 가는 여성들이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폴란드에 거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자신들이 난민(беженцы)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했던 한 여성은 전쟁이 일어나자 무작정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 기차를 타고 바르샤바역에 도착했다. 거대한 하얀 천막이 펼쳐진 바르샤바역에서 다시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캠프에 도착해서 칸막이도 없는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자야 했던 난민 숙소에서의 첫날을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생면부지의 자신들에게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해준 폴란드인들의 마음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캠프에서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햇빛

이 잘 들어오지 않기에 낮에도 전등을 환하게 켜놓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아빠와 헤어져서 낯선 나라에서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하는 다른 나라 아이들과 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에게도 전쟁은 크나큰 스트레스이다. 밤이면 악몽을 꾸며 울고 소리치는 아이들, 언어 장애를 겪는 아이들, 비행기 소리만 나면 귀를 양손으로 틀어막고 엎드려서 우는 아이들...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개월을 고향에서 살다가 바르샤바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시간에 아이들은 폭격과 파괴 등 전쟁의 실제 모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파괴되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이어가다가도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 방공 시설로 대피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난민 캠프에는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 치료를 하는 곳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놀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서 기타와 탁구를 가르치기도 한다.

내가 만나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전쟁이 끝나 남편과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쟁이 끝나길 소망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폭격으로 살던 집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자신들이 떠난 집에 현재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또한 가족을 만나러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향에 가보니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CIS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고, 뿌리가 뽑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번의 만남은 나에게도 생경한 경험이었다. 차가운 무표정을 한 사람, 표정은 없는데 눈빛은 슬프고 지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 말을 꺼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데 당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 인터뷰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표정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이 풀어

지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풀어지지만,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나는 점점 무거워진다.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린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예요”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지 않고,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에도, 폴란드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그 둘 사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무력감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여정을 통해 한 사람이 세웠던 삶의 계획과 꿈이 전쟁이라는 폭력 가운데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궤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었다.

● 최아영 회원은...

모스크바국립대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서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동시에 국제회의 통역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탈냉전시대 아시아의 재구성과 아시아인의 정체성』(2023, 공저) 『아시아의 이주와 모빌리티』(2021, 공저), 「공유된 역사, 엇갈린 국경 -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경계 논쟁」(2021) 등이 있다.

## 한국을 향한 창

# 「해녀리나」의 작가 니카가 말하는 제주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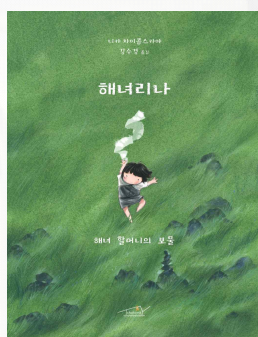
### 니카 차이콥스카야 (그림책·캐릭터 작가)

\* 아래의 글은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부가 니카 차이콥스카야 작가와 가진 서면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러시아어로 진행되었고 총무부에서 번역하였습니다.

■ 노어노문학회 총무부(이하, 학회): 안녕하세요, 니카 작가님! 한국노어노문학회의 서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학회원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니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니카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왔고요.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학습교재에 들어가는 삽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책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캐릭터 그리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작은 초상화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 학회: 정말 흥미롭습니다! 작가님께서 그동안 만드신 책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녀리나, 2권>

■ 니카: 네, 저의 첫 책은 『해녀리나』입니다.

이 책은 제주도에 사는 해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책의 주인공은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요, 바닷속에서는 마치 발레리나처럼 가볍고도 우아하게 헤엄을 치지요. 그리고 문어를 잡고 미역과 해산물을 채취한답니다. 그런 할머니에 대한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이야기책입니다. 얼마 전에 후속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주인공인 할머니의 손녀가 등장합니다. 손녀 역시 이담에 자라서 해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처럼 재빠르고 우아한 해녀 말입니다. 이렇게 저의 책은 어쩌다 보니 모두 제주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슴가족에 대한 책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스도 모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 학회: 작가님께서 초상화도 그린다고 하셨어요. 작가님에게 있어서 초상화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니카: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한 건 약 5년 전에 다양한 거리 축제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건 저로서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본질을 짧은 시간 안에 그림으로 재빨리 전달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모두 마스크를 하고 다녔지요. 제게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이전 시절에 대한 일종의 향수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서로의 얼굴과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예전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그의 눈으로 보려

고 애씁니다. 초상화와 캐리커처가 주인공인 그 사람을 미소 짓게 할 때 정말 기쁩니다.

■ 학회: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 작가님께서는 한국을, 물론 특히나 제주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과 작가님의 창작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제주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니카: 맞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척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고, 바로 여기에서 저는 저의 첫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한국의 예의 바름 그리고 유머 감각이 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매우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무엇보다도 제게 있어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준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아주 건조했던 도시 광주를 떠나 제주도에 와서 전 정말 매우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시 꽤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제주도에 와서 전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 다. 이후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저는 이 제주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를 알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역사, 언어, 그리고 사람들! 특히 해녀 할머니들은 저의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레닌그라드 봉쇄를 이겨낸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원칙을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선량하시고 유쾌한 여인이셨습니다. 제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제주도 해녀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앎이 저의 첫 번째 책 「해녀리나」를 탄생시켰습니다.

■ 학회: 작가님,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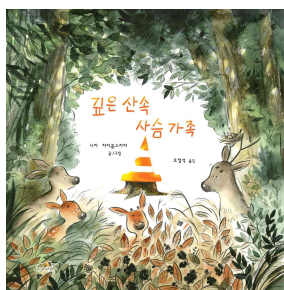
■ 니카: 저의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장래 계획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통일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거리를 다니며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계획이라기보다는 소망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해녀 할머니에 대한 세 번째 책,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세 권의 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 학회: 니카 작가님, 다시 한번 즐겁고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선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니카: 감사합니다! 작품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 니카 차이콥스카야는...

래핀 예술아카데미와 모스크바 텔레비전-영화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삽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부터 다락원, 교학사, 해피하우스 등에서 출판되는 도서 및 EBS 교재의 삽화 작가로 참여 중이며, 제주도 예술학교 강사로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그간 ‘서울국제도서전’,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차이콥스키 패밀리박스>를 공동 창업했으며, 『해녀리나』 시리즈, 『The Tennents Series』를 집필했다.



<깊은 산속 사슴가족>, <엄마의 계획 1>

## 러시아를 향한 창

### 삶으로 배움을 마주하다



권지은(충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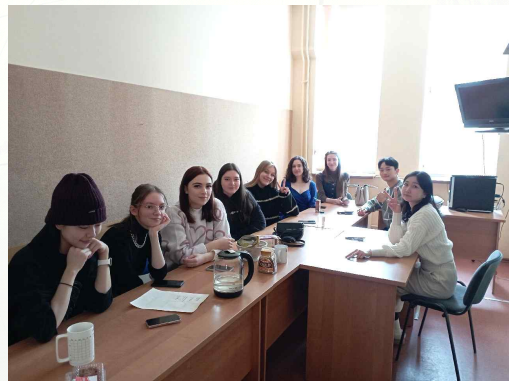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지낸 지도 어느덧 42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적응할 만큼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매일 새로운 것들을 마주한다.

처음 마주한 새로운 일은 기숙사에서 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다. 룸메이트는 타지키스탄 출신으로 대학교 학부생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도 조금 했지만, 시간이 지나 친밀해지고 나니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되어있었다.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러시아어 회화 실력이 늘기도 했다. 지금도 서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자국의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다.

모인 동아리 활동이었다. 이 활동에 참여하며 러시아 학생들과 언어와 문화를 교환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며 만난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 카페를 가거나 가볍게 술을 마시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대화가 대부분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통을 위해 스스로 더 공부하게 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통해 표현과 문법을 많이 배우게 되곤 한다.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 '한국어클럽' 학생들과 함께>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 '한국어클럽' 봉사활동>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고 강의와 학교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대학교 내에 '한국어클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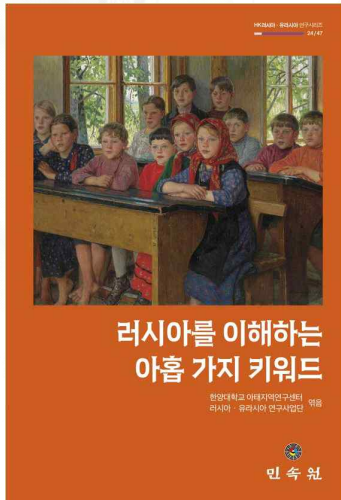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에는 모스크바 세종학당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활동을 한다. 이곳에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한국어 억양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돕거나, 문법적인 부분을 고쳐주는 등 원어민으로서 학습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

내가 모스크바 교환학생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간략히 써 보았다. 활동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사실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전공 수업 시간에 책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할 때 벅차오르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러시아어로 소통할 때면 내 러시아어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모두 나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러시아에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학업과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자 한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성장한 나를 마주하길 소망해 본다.

## 신간 안내

### 러시아를 이해하는 아홉 가지 키워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민속원 2024-01-23

ISBN: 9788928519521

본 도서는 1990년 한러수교 이후 30년을 훌쩍 넘긴 양국의 상호교류를 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러시아를 더 잘 알고 다가가기 위하여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들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념의 장벽으로 인해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러시아와의 소원한 관계는 수교가 재개된 이래 점차로 그 간격을 줄여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러 양국 관계를 다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가 절실한 지금, 이 책은 러시아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잠재우고 '진짜 러시아'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576550> (교보문고 제공)

### 야시카: 농민, 유형자, 군인의 삶



마리아 보치카료바 지음 / 류한수 옮김

아르테(arte) 2024-02-28

ISBN: 9791198698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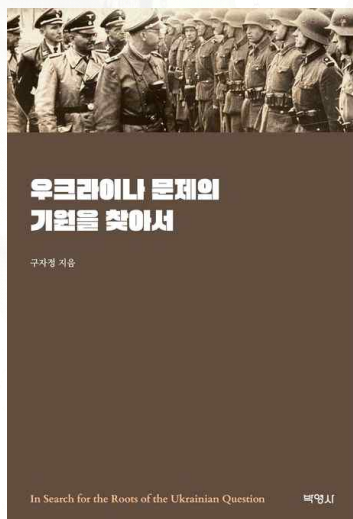
이 책은 러시아의 여성 군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근현대) 세계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인 '제1러시아 여성결사대대'를 창설하고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마리아 보치카료바(1889-1920)의 자서전으로, 1918년 야시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어로 구술한 내용을 러시아 출신 미국인 아이작 돈 레빈이 받아 적은 후 영어로 옮긴 것이다. 우리 역사학과 여성학계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여성 군인'의 목소리를 담은 이 책은 세기 전환기 러시아의 실상, 1차대전과 러시아혁명 격변, 러시아 민중과 병사의 모습, 러시아 여성의 위상과 페미니즘, 군대와 전쟁에 관한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56383> (교보문고 제공)



# 신간 안내

##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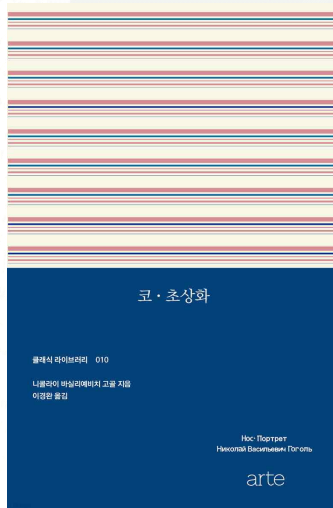


구자정 지음  
 박영사 2023-01-10  
 ISBN: 9791130316628

한때는 '소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지역의 역사는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중첩된 모순과 역설, 그리고 혼돈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책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을 '민족사'와 '국가'라는 프레임을 통해 해석하려는 기존의 시선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쟁점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그 기원부터 차분하게 분석하며 짚어나가고 있는 이 책은 해당 사안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 및 일반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특별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555994> (교보문고 제공)

## 코 · 초상화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지음 / 이경완 옮김  
 아르테(arte) 2024-02-28  
 ISBN: 9791171174362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의 작품 중에서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 다섯 편을 담은 『코 · 초상화』가 아르테 고전문학 클래식 라이브러리 시리즈의 열 번째로 출간되었다. 새롭게 출간된 고골의 번역서는 러시아어 원작의 문체를 살리는 동시에 자세한 역주를 병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이번에 출간된 번역서는 「넵스키 거리」, 「광인 일기」, 「코」, 「초상화」, 「외투」가 작품 발표순대로 시기별로 실려 있어 당시 러시아 사회와 인간군상을 풍자적으로 통찰해 낸 고골 특유의 시선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남다른 경험과 재미를 제공한다.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568327> (교보문고 제공)

## 공지사항

### ● 춘계 및 연례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신청 안내

다가오는 5월 11일 토요일에 우리 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년도 하반기에는 11월 30일 토요일에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학회총무국 메일(karll21@naver.com)로 연락해주시거나, 또는 신규 개편된 학회 홈페이지 내 '학술대회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발표자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문학, 어학, 문화, 역사와 관련된 자유 테마 발표, 또는 그간의 학술 성과를 요약하여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다가오는 10월 12일 토요일에 러시아학 4개 학회(한국노어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학술대회프로그램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신규 임용 소식

우리 학회의 김준석 회원이 2024년 3월 1일 자로 경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소식지 원고 투고 및 신간 홍보 안내

소식지 제91호 발간 예정일은 2024년 9월 1일입니다.

소식지 내 '회원논단', '러시아를 향한 창', '한국을 향한 창'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다가오는 7월 31일까지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국 메일(karll21@naver.com)로 글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회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신간 안내' 코너에서 회원분들의 저서 및 번역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서 또는 번역서를 새로 출간하신 회원분께서는 언제든지 총무국 메일로 관련 도서의 간략한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지 『노어노문학』 투고 안내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러시아어와 문학, 문화 및 역사를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등재학술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합니다.

학술지 『노어노문학』에 논문투고를 원하는 회원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 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내에 논문을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분야 및 원고의 종류

- 1) 분야: 러시아-슬라브권 문학 및 어학, 어문교육학, 역사학 등 인문과학 전 분야  
(단, 이전에 다른 곳에서 출판된 적이 없거나 출판 예정에 있지 않고, 출판을 위한 논문심사 기간이 겹치지 않는 원고)
- 2) 원고 종류 : 상기 분야의 연구논문, 서평, 문헌 연구 및 보고서, 자료 개관 등 요령

### 2. 논문투고 자격: 연회비 납부 의무를 완수한 회원 혹은 외국인 학자

### 3. 논문의 분량

- 1) 연구논문은 요약문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편집본 기준 최대 A4 30매 ('아래아 한글'로 작성 시, 편집 이전 기준 A4용지 약 20매, 혹은 MS-워드 A4 용지 약 24매 내외에 해당) 이내로 작성하며, 이를 초과할 시 편집본 기준 장당 2만 원의 추가 인쇄비를 내야 한다.
- 2)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 및 자료 개관 등은 '아래아 한글' A4지 10매(편집 이전 기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5. 투고 방식: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JAMS 2.0)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고자가 원고를 JAMS 시스템 내에 직접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JAMS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 등재학술지 『노어노문학』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링크: <https://karll.jams.or.kr>

### 6. 원고 형식

- 1) '아래아 한글(hwp)'로만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투고자 경우에만 MS-워드 문서 작성을 허용한다. 논문작성양식을 이행하지 않고 투고된 논문은 반려한다.
- 2) 연구논문은 논문 제목, 본문, 각주, 참고문헌, 본문과 다른 언어로 작성된 요약문(한글의 경우 500자 내외, 외국어의 경우 200단어 내외)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최종본 제출 시 별도의 파일로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2) 저자의 한글 이름 및 영어 표기 이름, (3) 5개의 한글 및 영어 주제어 (key words)를 제출해야 한다.

4)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사사 표기를 지우고 논문을 탑재한다.

7. **제출마감일:** 매년 2월 20일(제1호), 5월 20일(제2호), 8월 20일(제3호), 11월 20일(제4호)

## 8.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규정

1) 논문심사료: 논문 제출 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료(6만원)를 『노어노문학』 편집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회비와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 단,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납부를 면제함)

2) 논문게재료

-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논문의 최종본과 함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논문 게재료는 전임, 비전임 구분 없이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

<연구비 비수혜 논문> 10만원 (별쇄본 인쇄비 포함 금액)

단, 서평, 문헌 연구 및 보고서, 자료 개관의 경우는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9. **배포 방식:** 온라인 배포가 원칙이나, 논문을 게재한 저자에게는 인쇄본과 별쇄본을 지급한다.

10. **저작권 소유 및 활용:** 『노어노문학』에 투고한 저자(일동)은 투고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노어노문학회에 양도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저작권 양도는 저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기타 논문 투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노어노문학회 편집부 메일(karlledit@nave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현황

### ● 평생회비 납부 회원

강덕수	강명수	강수경	강홍주	곽태석	고 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민아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효	김원한
김유진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태옥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영은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손현익	송정수	송현배	신보람	신혜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전혜진	정막래	정미숙	정보라	정세진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종규	최진석	최행규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기은	황성우	

### ● 평생회비 분납 현황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 2022년 연회비 납부 회원

가옥 류드밀라(Гаук Людмила)	권경준	길윤미	김나영	김연경	김혜진	남대현	남혜현
박미정 신봉주 유정화 이남경	이상아	이성민	이승억	임수영	전미라	정지운	조준래
카파루쉬키나(Капарушкина Д.И.)	한현희	허선화	홍선희	황서경			

### ● 2023년 연회비 납부 회원

강동희	길윤미	김나영	김세림	김은진	박미정	박인나	박현지	오동건	이종현	한현희
아나스타시야 레드코(Анастасия Редко)										

### ● 2024년 연회비 납부 회원

김수환	김영춘	김용화	김혜영	백경희	유정화	강동희
-----	-----	-----	-----	-----	-----	-----

### ● 2023년 씨앗기부금 후원 현황

김상현(40만원)    전해진(50만원)

※ 상기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학회총무국 메일(karll21@naver.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시와 함께 머무는 시간

Цветы последние милей...

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

Цветы последние милей  
Роскошных первенцев полей.  
Они унылые мечтанья  
Живее пробуждают в нас.  
Так иногда разлуки час  
Живее сладкого свиданья.

마지막 꽃들이 더 사랑스럽다

번역: 정지윤(경북대)

마지막 꽃들이 더 사랑스럽다  
들판의 화려한 첫 꽃들보다도.  
우리 안 쓸쓸한 꿈들을  
더 생생하게 잠 깨우는 마지막 꽃들.  
이별의 순간도 때때로 그렇게  
더 생생하다, 달콤한 만남의 순간보다도.

